

무주읍,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영예

65개국 중 40곳 선정...국내 2곳
청정 자연·전통·축제 등 높은 평가
관광 브랜드 강화·외국인 유입 기대
무주군 “지방소멸 극복 모범될 것”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1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무주군 무주읍은 2월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장답사 및 후보 마을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선 공모에 출품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은 2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축하 한마당’ 행사(주관: 무주군 관광협의회)를 열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주민들은 “무주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관광마을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를 계기로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세계 최우수 관광지 주민다운 면모로 손님들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악대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17일 중국 후저우시에서 수상한 ‘관광마을 상패’를 무주읍 주민들을 대표해 신운주 무주읍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린 무주군 무주읍은 앞으로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홍보 페이지 제작도 가능해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친환경 생태관광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애郷심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세계관광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군 무주읍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에 최종 선정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민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무주군>

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었다”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대열에 선 만큼 무주다운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로, 무주군 무주읍은 △향토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청정 자연환경, △한풍루,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삶의 기반이 되는 무주 마실길(금강마실길, 금강맘새길), 소이나루공원, 자남공원 등의 자연 자원은 물론, 공립 최북미술관과 김한태문학관, 북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 등의 생활·문화자원도 주목을 받았다.

현재 무주군 무주읍에서는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비롯해 태권브이랜드, 생태모험공원 등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천혜의 자연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여행코스 탄생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앞으로 △유엔세계관광기구 주관 국제행사 유치, △최우수 관광마을 관련 상품 상설화, △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국내외 공모사업 참여 등 연계 사업 발굴 및 대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는 세계 65개국 207개 신청마을 중 총 40여 곳이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무주군 무주읍’과 ‘양평군 양수리’ 2곳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역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는 △전북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2021), △전남 신안 파룡섬(2021), △경남 하동 평사리 섬진강마을(2022), △제주 세화마을·동백마을(2023), △전남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2023) 등이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순창군 기본소득 시범 선정 환영”

“李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첫걸음”
전북형 기본소득 확산 공론화 속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됐다”며 “이번 기본소득 사업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소득안정과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순창군민과 순창군에 축하를 표했다.

또 “도내 소멸 위기에 직면한 11개 지자체별 기본소득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남 신안, 경북 양양 사례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면서도 전북 특성에 맞춘 전북형 기본소득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자 배터리 재활용 최적화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고도분석센터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배터리 핵심 소재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첨단 시설이며, 최적화센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활용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연구 기

전북, 이차전지 전주기 지원 강화 새만금 ‘K-배터리’ 중심지로

소재·재활용 투자·R&D 전폭 지원
특화단지 24개사 9조 3천억 투자
고도분석·재자원화 센터 구축
대학·특성화고 협력 인력 양성

전북도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분야 핵심 거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재 공급망 내재화와 신소재 개발, 재자원화가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부터 기술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새만금은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특화단지 내 24개 기업이 총 9조 3,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LS L&F, LS MnM 등 대기업과 SK온, 포스코퓨처엠의 합작법인 및 자회사도 포진해 있다.

에코앤드림, 이디엘, 퓨처그라프 등 주요 소재 기업과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성일하이텍 등이 가동 중이거나 입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달 전구체 생산공장을 준공한 LS L&F 배터리솔루션은 향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7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도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자 배터리 재활용 최적화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고도분석센터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배터리 핵심 소재의 특성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첨단 시설이며, 최적화센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활용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연구 기

관이다.

또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200)을 확보했다. 10월 출범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를 통해 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맞춤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와 협력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 군산대 등 10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전북대는 2026년부터 이차전지 전공학과를 신설해 연간 30명을 배출한다.

도내 5개 특성화고에서도 12개 관련 학과를 운영하며, 이리공고는 마이스티고 전환을 준비 중이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120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연간 1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9월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기업의 안정적 입주와 정착을 돕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개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9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이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인더배터리 2025’, 9월 ‘배터리 코리아 2025’에 참여해 새만금의 투자 매력을 홍보했다. 오는 23~24일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배터리 혁신’을 주제로 7개국 20명의 연사가 참여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차세대 기술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5. 10. 24(금)
- 11. 2(일)
중앙체육공원

전북 스마트공장 기업, 서울 비즈엑스포서 판로 확대

14개사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삼성전자·중기중앙회 등 주관
수출상담·라이브커머스 등 진행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모델 주목

전북도는 2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비즈엑스포'에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삼성전자·중소기업중앙회·동남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 상생협력 박람회로, 전국 80여 개 구축기업이 홍보관을 마련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0주년을 기념해 특별관 및 전시관 운영, 구매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

외 판로 개척과 홍보 기회를 확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막식에 이어 전북도 기업관을 둘러보며 지역 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과와 수출 실적을 살폈다. 도내 14개 기업은 제품 홍보와 상담·판매를 위한 부스를 열었으며, 구매상담회 27개사, 라이브커머스 방송 4개사가 참여했다.

또 수출 상담 등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 100여 명과 현장 미팅을 진행하는 등 판로 확대에 성과를 올렸다.

도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국 최초 민간 협력형 혁신모델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AI·데이터 기반의 공정혁신과 맞춤형 현장 멘토링을 실시하며, 지역 주도의 제조혁신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스마트비



전북도는 2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비즈엑스포'에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즈엑스포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전국적 판로를 넓히고 더 큰 성장의 발핵심 행사다"며 "이번 참여를 계기로 전북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윤준병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준병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사표'

정부 성공·지방선거 승리 목표
행정·정치 융합 리더십 내세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2026년 지방선거 승리·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역강부약(抑強扶弱)과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염원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선봉장, 지방선거 승리의 요람, 그리고 전북 대도약의 강력한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본인의 강점으로 '행정 - 정치 융합 리더십'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 경험을 토대로 전북의 현안

을 국정운영에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성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설계자로서 2026년 지방선거의 압승

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으로 개혁 공천을 단행하여 무소속 강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을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직 전북도민을 위한 헌신과 정책 실행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참신함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유능한 지방 리더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기회를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 경륜과 정치적 파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신이 전북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추진 엔진 역할을 하고, '당원 주권 정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 윤준병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2026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끌어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실현할 가장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후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여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새만금 투자설명회로 관광·산업 유치 '속도'

서울서 새만금 투자설명회 개최
신항만·국제공항 등 접근성 강조
관광·산업 복합 잠재력 적극 홍보
참석자 "정부 뒷받침 참여 검토"

전북도는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가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의 지원과 기반시설이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원활히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만큼 논의된 투자자들의 의견을 사

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새만금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주영은 의원 대표 발의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보건·요양·생활지원 연계 근거포함
27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

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및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사업 외에도 다제약물관리 및 기존 돌봄 서



국주영은 도의원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 관련 기관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스로 총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전북자치도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거주지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에 나섰다.

올해 가을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아, 전북도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09시~21시, 주말·공휴일 10시~20시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전북지역 가을철 산불은 총 23건, 피해 면적 7.39ha로, 65%가 등

산과·약초 채취자의 실화로 발생했다.

전북도는 산불취약지 1만 4천ha와 103개 등산로를 중심으로 입산 통제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산불감시원·진화대 1,500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또 AI 기반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산불상황실에 구축하고 11월 초 시민운영대 CCTV 연기·불꽃을 자동 탐지하며, 입차 헬기 3대와 연계한 초동 진화 시스템도 가동된다. 산불조심 기간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은지 기자

산 초입부터 정상까지,
어디서나 지킬 사항들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
산불 예방 수칙

1. 쓰레기 소각 금지

2. 입산 통제 구역 안내 준수

3.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4. 흡연 금지

한복의 도시 전주! ‘비단夜’으로 가을밤 밝히다

21일 전라감영서 한복 입고 한복 문화 축제 서막 열어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2025 한복문화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한복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21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내빈, 외국인 참가자, 일반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이자 ‘한복의 날’ 기념행사인 ‘비단夜(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체험 부스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복 대여가 제공돼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전라감영 일원은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선화당과 어우러진 한복등(燈) 세레모니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한복의 전통

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이번 ‘한복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분이 한복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2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이어질 다채로운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구직자 대상 ‘AI 취업’ 코칭 나서

구직전략기술 특강 진행

전주시가 구직자들에게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시대에 걸맞은 취업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21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구직전략기술 특강’을 열고,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연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활용법을 안내했다.

이번 특강은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역량을 표현하

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지식·기술·태도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참석자들은 △‘고용24’ 플랫폼의 인증 절차 △직종 탐색 △지원서 작성 △역량 진단 등 구직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

아보며, 개인의 강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와 전북중장년내일센터 등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과 청년·여성·중장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소개돼 참여자들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구직자들이 자신감

을 가지고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인 ‘구직전략기술 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와 왔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AI 활용 능력과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역량은 중·장년층에게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주시는 시민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 기반의 실전형 취업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기업 성장 이끄는 지역창업초기펀드 성과 공유

전주형 콘텐츠펀드 ‘지역창업초기펀드’ 투자 성과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

전주시는 ‘전주시 지역창업초기펀드(콘텐츠산업) 성과공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21일 서울 타임스타운 유니온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지난해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를 위해 출자에 참여한 ‘지역창업초기펀드’ 운용사 ㈜크립톤(대표 양경준)와 함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이날 최근 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통해 확대된 지원 인센티브를 소개하며, 유망 콘텐츠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다.

또 ‘2034 전주 영화·영상산업 비전’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안내하며, 글로벌 영화영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어 △전주형 콘텐츠펀드 운용성과 발표 △LIPS·TIPS 프로그램 소개 및 투자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

했다. 이와 관련 ‘지역창업초기펀드’는 지난해 8월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모를 통해 30억원의 모태자금을 확보한 후 전주시 출자금 10억원과 민간 투자자 10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소민 기자

제26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문화행사 열려

21일 전북장애인복지관 체육관서 체육경기·노래자랑 등 화합의 시간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음 행사가 열렸다.

‘제26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가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경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투호, 훌라후프, 신발 양궁, 공 많이 넣기, 고리걸기, 전자다트 등



‘제26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가 전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이어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

/정소민 기자



“비용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주세요!”

“자발적인 시민 협조 중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정한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비용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용급환자의 경우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용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등이다.

이처럼 비용급환자 신고가 반복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용급 신고로 인한 출동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신속히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진행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전북경찰청(치안감 김철문)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한기만 전북경찰청 경무회장, 김원오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협력단체와 소속직원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찰의날 행사는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홍보동영상 시청, 정부포상 및 감사장 수여, 대통령 축하 대독 등 진행했다.

행했다.

식전행사로 1958년 순직한 장해준 경사를 비롯한 순직경찰 115명을 기리고 있는 전북경찰청 추모의벽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직 선배경찰에 대한 넋을 기렸다.

김철문 청장은 제80주년 경찰의날 행사에서 “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찰과 응답의 자세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는 든든한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덕진경찰서, 민·관 협력 범죄 취약지역 개선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최근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았던 금암동 일대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업 모델로 진행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로고젝터, 솔

라표지병, 안심 반사경 설치 등이 포함됐다.

덕진경찰서는 지난 수개월간 지역 내 범죄 발생 현황 및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덕진경찰서는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군산항서 선박 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56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6부두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2627t급 준선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선박에서 용접 작업 도중 용접용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각각 50대, 6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입어 해경

은 소방청 헬기를 이용해 환자 2명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 사고 선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스통 폭발이 발생한 선박에는 추가 화재 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승길 기자

고추기술 마스터과정 오이·호박 일억농부과정 수료식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21일 ‘제21기 전주시 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56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농업인대학은 ‘고추기술 마스터과정’과 ‘오이·호박 일억농부과정’ 2개

과정이 함께 운영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각각 15회, 총 70시간에 걸쳐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전문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고추·오이·호박 등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고품질 재배 및 안전 생산 기술과 병해충 관리, 유통·판로 개척, 선진지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재배능

가 농장에서 진행된 현장 컨설팅 덕분에 작물 재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득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이 양성됐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의 마인드를 통해 우리 지역농업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준비 박차

특별 기획 전시·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식품 산업 역량 강화 주력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 K-FOOD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세계 20개국 3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옌진흥원은 지난해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시 콘텐츠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B2B/B2C 통합 마케팅 지

원 등을 통해 전북 농식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성과 극대화를 위해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시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등 농식품 및 수출 전문 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식품산업 트렌드와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장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상담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해 지역 특화 클러스터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6차산업상품 및 간편

편의식 제품 등 전라 특화 상품 콘텐츠를 구성해 현장 거래 실적 및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별전시로 발효식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 전북식품명인대전, 전북지역향토음식홍보전, 올해의 간배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판매전을 운영해 중소식품 기업들의 판로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한 상생 마케팅을 수행하고, 해조류와 어류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산가공 제품과 젓갈 제품들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제품들이 소비자들

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해외기업관에서는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조지아,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총 12개국 34개사가 참가해 다채롭고 이색적인 상품을 관람객들에 선보일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타악 퍼레이드, VR 체험을 비롯해 전통 놀이, 현장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풍성한 행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벤처투자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 열어

벤처기업 밸류업·적기투자 위한 전략적 IR무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경)는 21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성장 중이거나 이전을 진행 중인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주제로,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운용사 및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해 기업의 성장·투자·정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번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유망기업 IR 피칭, 투자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올해 10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소재기업 ‘엘오티아이’와 중기부 스케일업 팀스 프로그램에 선정,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 진행 중인 세포 배양육 ‘판제’가 투자유치와 성장을 이뤄

낸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IR세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차(茶) 솔루션 ‘메디프레소’ △배터리 진단 솔루션 ‘모나’ △반도체 성분검사 장비 제조 ‘아이에스피’ △나노다이나몬드 ‘에스터블유케미컬즈’ △친환경 메탄저감사료 제조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 △이차전지 전해질 및 첨가제 ‘이피켄텍’ △방사성의약품 ‘카이바이오텍’ △이차전지 양극재용 추출제 ‘코솔러스’ △절대형기성 생균치료제 ‘헬스바이옴’ 총 9개사가 IR피칭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벤처펀드 25개, 누적 결성액 9,171억 원을 달성해 정책출자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투자모델을 구축 중이다. 올해는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완성해, 초기-후속투자-회수-상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며 현재까지 95건의 전북 벤처펀드 794억원, 공동투자 1,436억의 총 2,230억원의 벤처투자가 집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바로 전북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면서, “혁신의 씨앗인 스타트업의 자금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

도는 향후 11월 한국산업은행 연계 라운드, 12월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등 ‘2025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주도형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체크카드 출시

전북지방우정청 진안우체국 유기적 협력

전북지방우정청은 진안군 체크카드형 지역화폐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오늘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진안군 내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및 우체국뱅킹·chak어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진안군 내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전국 어디서나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충전 시 상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된다.

각종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진안우체국에서는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병무 진안우체국 국장은 “진안고

원 행복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함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 전주시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208호·209호 열어 발달장애아동 교육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종일)은 전주시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홍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8호, 제20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운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6년 개소한 전주시 유일의 장애전담 센터로서 15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 학령기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이 곳의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 장판, 화장실 도어, 슬라이딩 도어 등을 지원했다.

또 지난 2021년 보조금 미지원 기관으로 개소한 홍산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학습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을 중고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했으나, 노후화된 물품들의 교체시기가 도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도배, 책상, 의자, 테이블 및 의자, 불박이 정리함, 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홍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8호, 제20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식 싱크대 등을 지원했다. 오픈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 이성국 의원, 정성길 의원, 다운지역아동센터 김경옥 센터장, 홍산지역아동센터 김수정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권 부행장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

원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추천으로 이번 환경개선이 이뤄지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어려울수록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농진청, 양파육묘방식 선택폭 넓혀…육묘지침서 개발·예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양파 육묘 방식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10월 21일 경남 함양에서 노지 육묘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토양 전염병과 강풍, 강우, 습기 피해로 인한 모종 손실 등 양파 플러그묘를 노지에서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연구진은 함양군 양파 플러그묘 생산 실증 재배지에 토양 전염병 예방 소독 방법과 균일한 모종 생산을 위한 모종판 올리는 방법(완충재·진압기 활용), 강풍에 안전한 피복재를 적용하고, 육묘상 두둑은 폭 1m, 높이 25~30cm로 조성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강우 등 기상과 병해충에 의한 모종 손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계 정식용 육묘 지침서를 개발 할 예정이다.

또 모종 생산 기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양파 노지 육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

11월 14일까지 접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11월 14일까지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단 예산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공단 누리집(www.nps.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접수한 아이디어를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12월 중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사례’를 공모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 49건을

농지원, 안전월동 위한 맥류 적기 파종 당부

“적기파종·월동 대비배수로 정비 등 재배포장 관리 철저하”

최근 잦은 강우로 벼와 콩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에서는 맥류의 안정생산을 위해 파종 시기 준수와 월동기 재배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맥류 안정생산의 기본 조건은 종자관리와 적기 파종으로, 전년에 병해가 발생한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종자나 외부에서 분양을 받은 종자는 반드시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 종자로 전염되는 붉은곰팡이병, 감부기병, 줄무늬병 등 병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종자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는 카복신, 티람 분제 등이 있으며, 파종 전 종자 표면에 고루 묻도록 약 1kg당 2.5g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도의 맥류 파종 적기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 사이로,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잎이 5~6매 정도로 자라야 뿌리가 깊게 내려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므로 파종 적기 준수가 중요하다.

파종이 너무 빠르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다.

반대로 파종이 늦어지면 파종 후 잎이 3~4개(이유기)인 시기에 월동하게 되어 동해에 약하고 분얼과 성숙이 늦어져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기상이나 토양 여건으로 파종 시기가 지연될 경우, 종자량을 기준량(보리 13~20kg/10a, 밀 16~20kg/10a)보다 20~30% 증량하여 파종하고, 밀거름(인산, 칼륨, 퇴비 등)을 충분히 시비하며 복토를 두텁게 해 동해를 예방해야 한다.

파종 깊이는 안전 다수확을 위해 2~3cm가 적합하며, 늦게 파종할 때는 5~6cm 정도가 월동에 유리하다.

또한, 맥류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의 깊이를 30cm 이상 깊게 해주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파종 후 3~4일 이내에 토양차리운 제조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예방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은 “안전적인 맥류 재배를 위해 적기 파종과 월동 대비 배수로 정비 등 재배포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스마트전기안전 AI센터에 남원용성고등학교 전기제어과 학생 및 지도교사 50여명의 산업체 현장체험학습에 교통편을 지원했다.

전기공사協 전북도회, 남원용성고 산업체 체험 지원

학생 등 50여명 교통편 지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20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협회 스마트전기안전 AI센터에 남원용성고등학교 전기제어과 학생 및 지도교사 50여명의 산업체 현장체험학습에 교통편을 지원했다.

이번 체험교육은 “2025년 특성하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이다.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AI 기반 전기안전체험 콘텐츠를 통해 전기공사의 첨단 기술과 현장 화해 양파 노지 육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수 회장은 “지역 특성하고 학생들이 전기 분야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전기공사 사업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회는 매년 도내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간담회를 개최해 기능인력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협약(MOU)을 통해 특성하고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의 체험교육 등을 통해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시애틀 한국교육원, K-독서문화 ‘확산’

한국어·한국문학의 가치 소개…융합형 국제교류 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국에 한국 어와 한국문화의 가치를 알렸다. 전북교육청은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세계 최대 독립서점인 포틀랜드 파월북스(Powell’s Books)에서 ‘한국어 기반 북큐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최대 독립서점인 파월북스에서 열린 북큐레이션은 미국 내 일반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의 깊이와 매력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도서 100선

이 전시됐으며,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전북의 수석교사와 사서의 해설이 함께 하는 한국어 수업·독서 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한국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해 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포틀랜드 파월북스 관계자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문학을 미국 독자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글날의 국제적 의미 확산, 전북 추천도서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 세계화, 현지 독자·교육자와의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이번 북큐레이션은 단순한 도서 전시를 넘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학을 매개로 한 교육문화 융합형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글과 한국문학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산이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과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관리사고 예방 설명회 자율적 관리문화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분청 강당에서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안전관리 및 학생안전사고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초·중·고·특수학교(원)장 약 200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임성과 대응체계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5년 학생안전교육 중점 추진 방향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체계 안내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학교안

전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등 학생안전교육과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분청 강당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A+B홀)에서 총 5회에 걸쳐 900여 명의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논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설명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형 학생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 대응과 보고가 가능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의 안전은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기후행동 실천 사례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일 국립전주박물관 및 전주역사박물관 일원에서 ‘2025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그린(Green) 오늘, 함께 만드느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학교 환경교육 자원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교육의 현수소를 확인하고, 학생·교원·교육전문직원 등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현수막 없는 부스, 예코백·다회용기 사용, 탄소중립 실천 약속 챌린지, QR코드를 활용한 스텝 인증 등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생물다양성·자원순환·에너지·지속가능성 등 탄소중

립교육과정의 5대 영역을 살린 내용으로 구성, 참가자들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 발표, 환경골든벨,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목소리마당’ △환경교육학습공동체·학교·유관기관 등이 운영하는 ‘체험전시부스마당’ △교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나눔마당(전문가 특강) △환경영화마당 △실천인증마당 등이 있다.

정미경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환경교육 한마당은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 환경교육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 지역민 ‘호응’

10개 어린이집 찾아 체험활동

올해 무드등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아동들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나무판에 색칠하기, 목공풀로 나무 붙이기, 목재 표면 사포질 등을 통해 목재와 친밀해지는 경험의 기회를 가졌다.

오승원 목재가공지원센터장은 “대학이 가진 우수 인프라와 역량을 지역민들과 공유해서 지역민들이 우리 전통 목공예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찾아가는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전통 목공예 체험을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해양문화교류 연구 협력 기반 마련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해양제사와 교류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해양제사와 교류’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동아시아 해양제사와 교류’는 ‘부안 죽마동 제사 유적’ 이후 30년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이다.

이울러 부안 죽마동 유적은 변산반도 끝자락의 절벽 위 평탄면에 자리한 해양제사 유적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향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어져 온 장소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죽마동 유적의 역

사적 중요성을 되돌아보며, 동아시아 해양제사 연구의 시각에서 죽마동 유적의 국제성과 해양 교류사에서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해양제사와 교류’는 개관 35주년을 기념해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동안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충남대학교 우재병 교수의 기조강연 ‘고대 부안 죽마동 제사의 국제성과 역사적 의의’를 시작으로 ‘고대 동아시아 해양제사와 교류’ 주제가 발표된다.

이어 △삼국시대 부안 죽마동 유적의 특징과 전개 양상(강소희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변천과 부안 죽마동 유적의 의미(임동민 교수 계명대학교) 일본 고대 무나카타 지

역의 교류와 해양제사 유적(오카테라 미키彌寺未幾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참사보좌)이다.

23일 발표 주제 발표 후 이나경(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임해빈(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택구(조선문화유산연구원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24일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사’ 주제로 △중국 마조·관음 신앙과 해양제사(려우 정하오正豪 중국 절강해양대학 교수) △한반도 해양신앙의 변천과 의미(진정환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항해신앙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아마우치 신지山内晋次 일본 고베여자대학 교수) △베트남에 있어서 ‘남해신’ 여러 양상의 성립과 전개(팜 레 후이Pham Le Huy 베트남 국가대

학 교수) △한반도 서해안의 해양신앙과 죽마동 수성당제(홍태한 무형문화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 양은경 교수(부산대학교) 김아네스 교수(한경대학교) 정순일 교수(고려대학교) 김종호 교수(서강대학교) 강성복 교수(충청민속문화연구소장)의 토론과 함께 1·2부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이 함께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심포지엄 개최의 의의를 “죽마동 유적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 향후 국제적인 인적·문화적 학술 교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학계 및 전북지역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법

01

피곤할 땐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최소 10분간 쉬어가기

02

졸지 않기 위해 카페인, 짬 음식물 섭취하기

03

장거리 운전시 2시간에 한번 쉬기

04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산소 마시기

05

앞차가 졸음 운전 할땐 경적소리로 주의 주기

졸음센터

ZZZ

순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 시동

21일 주민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북서부 지역 재편 시행계획 설명
12월까지 최종안 확정 계획

순창군이 농촌공간의 체계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21일 북흥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북서부재생살상화지역’으로 지정된 북흥·쌍치·구림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편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초생활서비스 확충과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특화지구 육성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소개됐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군은 21일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주민공청회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순창의 미래 농촌공간을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순창군의 농촌공간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를 모아주시면 더 멋진 행복 순창의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한편, 군은 12월까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순창군은 농촌의 난개발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능이 약해진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범정부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바 있다.

남원시 ‘가을 3대 축제’ 누리시민 스탬프 투어 성료

축제 기간 신규가입자 2,800여명
체류·소비 이어져 지역상권 호응
관의 누리시민 재방문 의지 강화

남원시가 이달 16~19일 국제드론제전·흥부제·국가유산야행과 연계해 운영한 ‘남원누리시민 스탬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축제 기간 신규가입자가 2,800여 명에 달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남원 누리시민 스탬프투어는 축제 기간 관외 누리시민이 3대 축제 현장을 순회해 스탬프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완주자에게는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푸드 등 농산품 이용권이 지급되었으며 숙박 인증 참여자에게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했다.

아울러, 남원누리시민 15만 명 돌파를 기념해 진행한 ‘N번째 완주자’ 특별 이벤트도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특화 친환경 한옥 호텔 ‘명지각’ 숙소 30% 모바일 할인쿠폰 또는 농산품 이용권(5만원)을 증정



남원시가 10월 16~19일 국제드론제전·흥부제·국가유산야행과 연계해 운영한 ‘남원누리시민 스탬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남원시>

했다. 500번째 완주자로 N번째 완주자 이벤트에 당첨된 김모씨는 “주말 동안 세 가지의 축제를 한 번에 즐기고, 현장에서 바로 쓰는 이용권으로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았다. 명지각 할인쿠폰으로 연말에 가족과 다시 남원을 찾을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 상권의 만족도도 높았다. 원푸드

드레스타에 참가한 지역상인 이모씨는 “농산물 이용권 사용자 유입으로 저녁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관외 누리시민과 지역상권을 연결해 준 프로그램이라 체감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외 누리시민의 재방문 의지를 강화하고, 숙박·식음·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소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재난 대응 현장 총점검 “실전처럼 완벽하게”

2025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진행
집중호우·산사태 시뮬레이션 훈련
16개 유관기관·단체 참여

“비상상황 발생! 인명 매물 신고 접수!”

21일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대가 순식간에 긴박한 현장으로 바뀌었다.

완주군은 이날 재난안전상황실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완주경찰서·완주소방서·완주군시설관리공단 등 16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토론힌현과 현장훈련이 이월 생존체 방식으로 동시에 운영돼 실제 재난현장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토론힌현에서는 재난 초기 상황 전파, 인명 구조, 응급복구, 주민 대피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이러 현장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매몰과 도로 단절을 가정해 소방,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해 구조·복구·통제 절차를 실제처럼 전개했다.

훈련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오늘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인터넷·전화조사 사전 시행
미응답 가구 방문 조사 병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전체 가구 중 표본 20% 해당하는 12,544개 가구 내·외국인과 이들이 사는 거처가 조사 대상이며,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구 및 외

국인 등 정책 수요와 사회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총 55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QR코드, 전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조사로 먼저 응답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사 등을 완료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

기간에도 인터넷 등 스마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사 시 응답한 모든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인터넷·전화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용진읍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베풀기 행사’를 21일 열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용진읍 10년째 ‘사랑의 쌀 베풀기’

이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 주관
100여명 수확...내달 나눔 예정

완주군 용진읍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베풀기 행사’를 21일 용진읍 이장협의회(협의회장 민성필)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점순) 주관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장과 부녀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속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쌀과 편지를 놓고 가던 익명의 독자가 따뜻한 선에서 비롯됐다.

이에 감동한 용진읍 이장협의회가 2016년부터 동참해 올해로 10 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3만 3,400kg의 백미를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3,340세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약 1만 3,000㎡(4,000여 평) 농지에 벼를 심어 4,000kg의 쌀 수확을 목표로 지난 6월 모내기를 진행했으며, 이날 수확한 벼는 건조·도정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사랑의 쌀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민성필 이장협의회장은 “올해는 벼에 병충해 피해가 많아 걱정이 컸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은 덕분에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매년 나눔을 실천해주는 용진읍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정성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최범현 어르신, 남원 적십자에
일백만원 전달

최범현 어르신이 “적십자를 위하여 써달라”며 일백만원을 전달했다.

최 어르신은 평생대학 졸업때부터 20년 넘는 세월을 평생대학에 열정을 갖고 면학해오고 있다.

올해로 90세를 맞은 최범현 어르신은 “오랜세월 함께 해온 평생대학을 위해 적은 성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원 적십자 평생대학은 매주 화요일에 강연과 노래교실, 체조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공부에 매진하며 건강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박영수 남원시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학,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평생대학을 위해 잘 쓰겠다”고 답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마음 톡톡 두드림 교실’
청소년 미술심리 치유

순창군은 지난 20일 순창새울중학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 톡톡 두드림 교실’ 1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 자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1회차 프로그램은 순창새울중학교 미술실에서 진행됐으며, 2학년 88명을 대상으로 사전 우울선별검사와 미술치유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쿠키를 활용한 감정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톡톡 두드림 교실’은 총 4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카소 얼굴 표현하기 △클레이 협동 작업 △희망나무 그리기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 인식과 자기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 회기에는 사후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과 자기 치유의 힘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현장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와 30일 향교동 운영
사회복지·신용·채무 등 상담

남원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향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권익구제 서비스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

활공간 인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속 고충민원상담과 더불어 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해 사회복지상담과 신용·채무 부담 상담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누구나 행사장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이나 궁금증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심층 조사와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국민신문고 대체 ‘새울전자민원창구’ 열어

민원 공백 방지 한시적 운영
국민신문고 복구 시점까지

순창군이 최근 발생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에 따라 군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울전자민원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공백이 생

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울전자민원창구는 순창군청 새울전자민원창구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은 국민신문고 복구 시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원 서비스의 공백 없이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처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어린이집 통학차량 집중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완주군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최근 완주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반기 차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통학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관내 27개 어린이집

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 28대가 참여했으며, 점검반은 △어린이보호표지 및 정지표시 장치 작동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정지표지판 작동과 하차확인 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로 미작동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요청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 28대가 참여했으며, 점검반은 △어린이보호표지 및 정지표시 장치 작동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완주군 아동돌봄기관
동물교감 활동 아동 정서 지원

완주군이 관내 아동돌봄기관 5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4회기씩 총 20회에 걸친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추진되며, 지역 아동들이 강아지와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기전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강아지를 매개로 한 체험활동과 감정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아지와의 친밀감 형성 △기초 돌봄 체험 △감정 표현 놀이 △공감·책임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아동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지자체-돌봄기관이 협력하는 완주형 지역연계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동물과의 교감은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정천고인돌 축제 개최 여의곡 유적 기억 잇는 화합 한마당

진안군 정천면은 지난 18일~19일까지 2일간 여의곡 유적의 기억을 잇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인 '정천 고인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면민을 비롯해 향우, 관광객 등 700여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이번 축제는 2019년 면민의 날에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유적을 공부하고 상석 이동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 시작이다. 그 뜻이 이어져 오늘날 면민과 향우, 인근 수물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발전한 것이다.

행사 당일에는 마을별 이름으로 당시 묻어 두었던 약속을 꺼내 나누는 행사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천고인돌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주민 공동체를 강화하는 희망의 약속이 되는 특별한 축제에 이어져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안=전길빈 기자



태권도원운영관리 노동조합, 무주 산간마을 LED등 교체 봉사

태권도원운영관리 노동조합(위원장 최희돈)은 21일 산간마을 부남면 상굴암, 굴암신대마을을 찾아 어두운 골목에 LED태양벽부등 설치와 생활주거공간 14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와 지난 8월경 자원봉사활동 MOU업무 협약을 맺고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불편해결을 위한 재능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을 시작으로 적상면 김왕마을 어두운 골목 LED태양광 벽부등 설치를 통해 산간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많은 호응과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더불어 보람을 느낄수 있는 봉사활동을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주=최희돈 기자

익산의 젊은 소리꾼 이다은 명창, 전국대회서 대통령상

송만갑 판소리 대회서 대상

익산의 젊은 소리꾼 이다은 명창(33)이 다시 한 번 판소리의 진가를 입증하며 전국에 익산의 이름을 알렸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다은 명창은 최근 열린 '제29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에서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구례 출신 국장 송만갑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단위 국악 경연으로,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권위 있는 무대로 꼽힌다.

이다은 명창은 탄탄한 기량과 깊은 소리로 심사위원단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으며,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 원, 부상으로 구례군 제1호 명창 죽호바람 김주용씨의 부채를 받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가 이수자인 그는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 등 각종 수상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 익산지부장을 맡고 있다. 익산어린이판소리합창단장, 원광대학교 출강 등 교육·공연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소리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위아원 전북지역연합회, 한혈 캠페인 진행... 총 891명 참여

'2025 위아레드 한혈 캠페인' 3년째 총 4500명 누적 한혈

명절 연휴로 혈액 수급이 빨간불이 켜진 시즌, 전북 청년들이 피보다 진한 나눔으로 희망의 맥박을 잇고 있다.

정년자원봉사단 위아원(We Are One) 전북지역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2025 위아레드 하반기 한혈 캠페인'에서 총 891명이 한혈에 참여해

위기 속 생명 수호의 선두에 섰다.

이번 하반기 캠페인은 800명 목표였으며, 3년째 이어진 꾸준한 참여로 총 4500명의 누적 한혈과 4500만 원 상당의 한혈 기부권을 달성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 위아레드의 한혈 캠페인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한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위아원의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완주군고령군 재향군인회, 영호남 화합 교류행사

완주군재향군인회와 고령군재향군인회는 최근 완주군 일대에서 제73차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영호남 친선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지역 향군회원 간 우의를 다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년을 이어온 이번 행사는 양 지역 향군 간의 우정을 넘어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완주군의 대표 문화유산인 경천면 화암사를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싱그러운 마을에서는 석부작 만들기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했다.

이후 열린 공식 기념식에는 유희태 군수가 참석해 노고를 격려하고 재향군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나눔연맹, 김제시에 7,370만원 상당 물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이 21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총금 7,37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물품은 △백미 10kg, 1,000포 △라면(12개입), 1,000박스 △건빵(3kg), 1,000개로 구성돼 있으며, 물품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어 기초생활 안정과 영양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한국나눔연맹은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김제시와는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김제시에 개소한 '전사 무료급식소'를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군산 소룡동, '사랑앓 짜장나눔 행사' 진행

군산 소룡동(동장 이건설)이 2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에서 '사랑앓 짜장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2012년부터 열린 '사랑앓 짜장나눔 행사'는 소룡동 사랑나눔짜장봉사회가 재능기부로 시작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지역 대표 나눔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부녀회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해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구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이웃간의 나눔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건설 소룡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룡동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봉동읍지사협, 복지사각지대 해소 홍보 캠페인 실시

완주군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장날을 맞아 생강골시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과 함께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 발견 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봉동읍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보건·복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가을등산 필수 준비물

즐거운 가을 여행이 아름다운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물을 꼼꼼 하게 확인 하세요!

**당일방문 지역과 산악날씨
체크하기**

등산화 착용
-미끄럼방지, 발목 보호-

물과 간식
-칼로리 소모 방지-

땀자리, 방석
-야생 진드기 방지-

**여분 배터리,
응급랜턴**
-응급상황대비-

겉옷 챙기기
-체온유지-

〈一事一言〉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3)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둘째는 사린(GB), VX와 같은 고 휘발성 신경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을 탑재할 경우 더 큰 살상효과를 발휘한다. M270 다연장로켓 발사시스템(MLRs)에 탑재되는 집속탄(M26)은 탄두중량 156kg에 자탄 개수가 644발이며,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제 무게를 늘리고 자탄을 줄인 M26A1은 자산 개수가 518개다. ATACMS 미사일(블록 1A)의 집속탄 모델인 MGM-140A의 경우 탄두중량이 560kg일 때 0.58kg인 자탄의 개수는 950개이며,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중량을 160kg로 줄이게 되면 자탄은 275발 탑재할 수 있다.

독성 신경가스의 살상 범위는 가스의 종류, 살포량, 기상 조건(바람, 온도), 살포 방식(에어로졸, 증기) 및 지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린가스 1.2kg을 살포하면 반경 33m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며, 액체 노출 땀 적은 양(1~10mL)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군사적 상황에서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량살포 때는 수십 km까지 확산될 수 있다. VX는 사린가스보다도 100배 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ACMS(블록 1A)를 기준으로 집속탄을 장착한 현무-5의 살상력을 계산해 보자. 현무-5의 공식 사거리는 300km로 탄도중량을 줄이지 않아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집속탄에 8000kg의 자탄을 탑재한다고 가정하자. 자

탄 1개의 무게를 2kg라고 할 때, 최대 4000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다. 고폭약의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로도 유효살상 범위는 축구장 면적의 700배를 넘는다. 이를 근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사망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화산-31형 핵탄두의 예상살상력과 그에 상응한 현무-5의 개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해 올 경우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대량응징보복 체계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 목적은 고위력 재래식 병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지하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무-5의 8-9톤급 탄두는 재래식 무기로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집속탄을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량살상을 초래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속탄의 사용과 개발, 생산, 비축 및 이전에 국제법적 제약이 없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CCM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폭약을 장착할 경우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풍산과 KDI 등 방산업체에서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집속탄은 국제적 논란이 있어 우리 정부는 자폭장치가 있는 탄만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의 생산 및 보유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화학무기사용금지협

약(CWC)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1997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CWC에 가입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평화중견국가로서 한국은 마땅히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제 핵공격능력을 갖지 않은 최소억제력의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 수가 100개를 넘어 제2타격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핵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평화통일은커녕 평화공존조차 힘들어진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운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에게 강압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한미 워싱턴선언」(2023.4.)을 보완해 북한의 핵위협으로 데프콘-3에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안보 위기상황이 오면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고 이를 위해 평시에 한미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를 강압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평상시에 이중용도기술을 활용해 화학작용제 생산능력을 갖춰놓고 있다. 북한 핵위협으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CWC를 탈퇴해 본격적으로 화학작용제가 장착된 집속탄을 생산해 대북 핵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각종 경제·기술적, 외교적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무한 군비경쟁은 안보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포기, 화해·협력 추진)에서 첫 번째가 ‘무력도발 불용’이다. 우리가 핵무기 보유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흔들린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무-5를 비롯한 고위력 재래식전력의 태세 구축은 불가피하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순창군이 여는 농촌의 미래, 기본소득 답이 될까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이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가 경쟁한 가운데 최종 7곳만이 선정됐고,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인구 감소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농촌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순창군에는 내년부터 2년간 총 973억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된다. 군민 2만7천여 명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금액이기에 이 돈은 곧바로 지역 상권과 생활경제로 흘러 들어간다.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과 소상공인 매출이 회복되고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순창군이 추진 중인 ‘모두의 햇빛 프로젝트’ 같은 재투자 모델과 연계된다면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자립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선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순창군은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통해 준비에 착수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생애주기별 보편 복지정책을 이미 실행해 온 행정적 기반도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국 농촌의 존속가능성을 묻는 실험이다. 젊은 세대의

이탈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정착과 귀농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촉진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순환경제로 이어지려면 자립형 사업 구조와 생산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순창군이 계획한 생활인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그 방향을 잘 짚고 있다.

그러나 실험은 어디까지나 검증을 전제로 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단기적인 소비 증대에 그친다면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군민 체감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일자리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와 노동의 선순환이 함께 작동할 때만이 지역 재생이 가능하다.

순창군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도 ‘모든 군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가치를 현실로 만들려는 실험이다. 중앙정부는 이 실험의 성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공 사례가 된다면 전국 농촌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순창군 역시 첫 사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행정의 정교함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국 ‘사람이 남는 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순창이 그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이는 단 한 지역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 농촌 재생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문화재열전



홍덕 당간지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당간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고창군 홍덕면
교운리 126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78-448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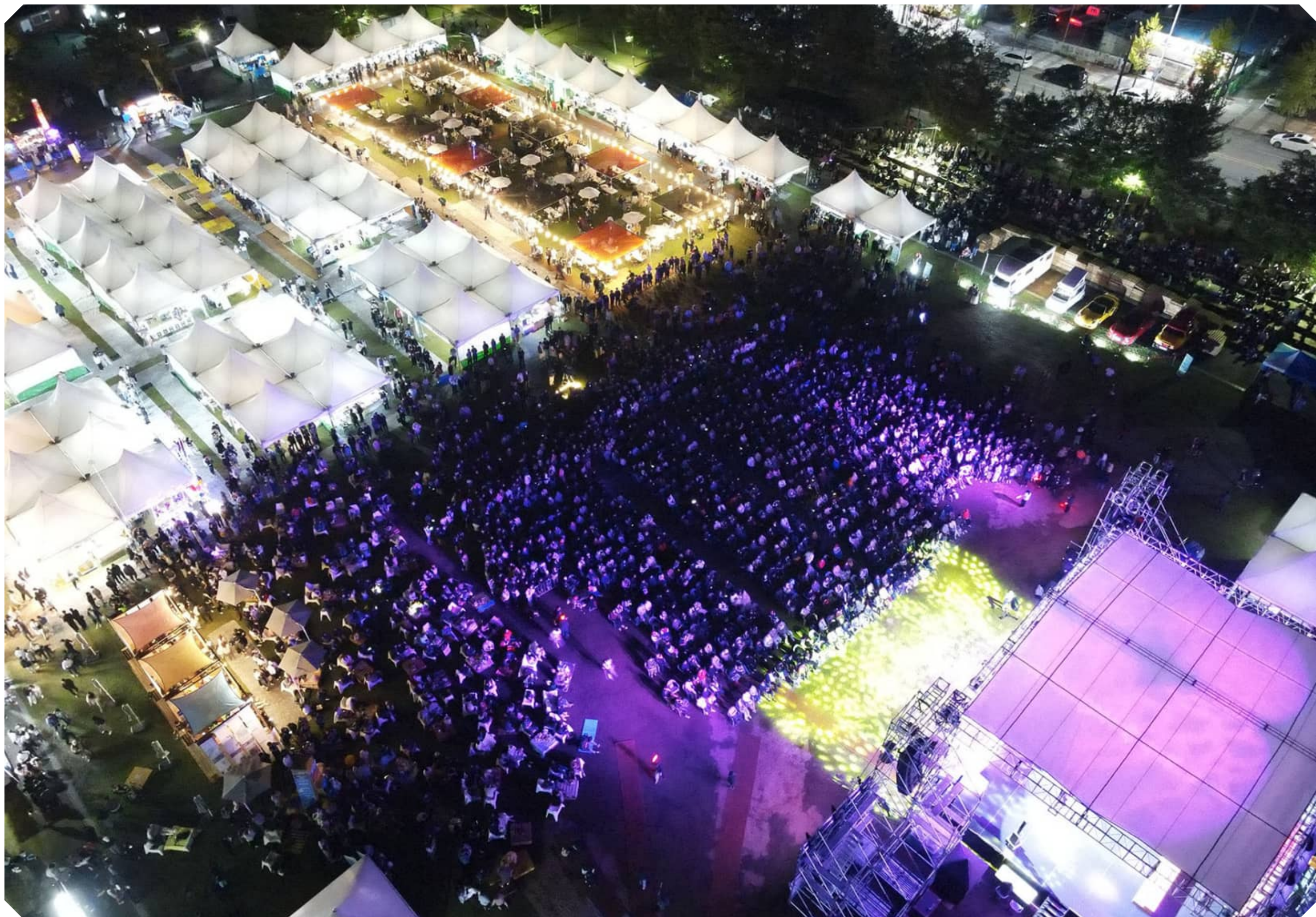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 TIMES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드라이브 인 페스타’ 3일간 대성황 속 성공적 마무리



Drive in FESTA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의 지역 상생형 문화축제 ‘2025 드라이브 인 페스타’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완주 둔산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일상에서 떠나는 가장 가까운 여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하며 완주 대표 문화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선도산단이 공동 주관했다.

(편집자 주)

근로자주민 5만 여명 참여… 지역 상생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첫날부터 뜨거운 호응… 금요일 밤 열기로 물들다

축제 첫날인 17일 오후 3시, 부스 개장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둔산공원을 찾아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 먹거리 부스와 완주 최대 규모의 플라마켓은 개장 직후부터 발길이 이어졌으며, 로컬 특색을 담은 다양한 제품과 음식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페스타 무대에서는 완주 예총 소속 뮤지션들의 ‘행복완주산단 어울림 콘서트’가 큰 박수를 받았고, 이어진 EDM DJ 파티는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며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 ‘문전성시’

3일간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폐차를 예술로 재해석한 오토아트존(라이브 드로잉쇼) △나만의 방향제 만들기와 자동차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드라이브존 △트렁크 플라마켓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MZ마켓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RC카 아드레날린 존 △자동차 에어바운스와 미니극장이 마련된 키즈캠프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별빛콘서트-근로자 가족가요제로 감동의 피날레

18일 오후 7시 열린 개막식에서는 산단 기업 근무자를 K-컬처 감성으로 재해석한 근무복 패

션쇼를 시작으로, 완주군 연합합창단의 공연과 유희태 군수의 축사로 축제의 공식 막이 올랐다.

이어진 별빛콘서트무대에서는 송하예, 존박, 크로스오버 그룹 카르디아가 가을 밤을 수놓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근로자 가족가요제가 열려 지역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가수 임창정의 피날레 공연으로 3일간의 축제는 감동 속에 대미를 장식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든 진정한 상생의 무대 메인 무대뿐 아니라 △행복완주산단 어울림 콘서트 △행복 완주산단 라디오 주민DJ △완주 플레이리그 E스포츠 대회 등 주민과 기업이 직접 기획·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지역 상생 문화축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유희태 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드라이브 인 페스타는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진정한 지역 상생형 축제였다”며 “일상 속에서 문화적 여유를 즐기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완주만의 따뜻한 완주형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